

한마디 말 없이
도 가족들에게
이슬람을 전하는
방법





1

미소는 마음에게 건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형제의 얼굴에 짓는 미소는 자선이라”**

살다 보면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가끔씩은 삶의 무게에 짓눌려 우리는 미소짓는 법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우리가 미소짓고자 할 때마다 사탄은 우리에게 힘들었던 과거를 떠올려 우리를 징그리게 합니다. 우리는 미소짓는 법을 잊었지만 미소가 중요한 순간은 항상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을 환영할 때 우리는 근사하게 미소짓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미소는 여러분의 심정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 “여러분은 기쁜 나머지 미소를 짓기도 하지만, 미소를 지음으로써 기쁨을 느끼기도 한다” 미소를 짓고 다니는 것은 여러분의 분위기를 띄워줍니다. 미소는 항상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미소지으면 사람들 이 알아봅니다

상대방은 우리와 대화할 때 우리 얼굴을 보지 않아도 우리가 미소짓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미소는 마음으로 전달되는 말입니다. 미소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긴장을 해소시켜 줍니다. 불쾌하거나 사적인 질문을 받을 때 미소는 유용한 답변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읽었기에 우리는 미소를 통해 내세의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미소지으세요!



2

마음으로 서로 연결되기

여러분은 어렸을 적에 부모님을 껴안고 뾰뽀하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어떤 이는 문화적 영향으로 인해, 유아기가 지났을 때부터 이러한 종류의 행위를 하는 것을 부자연스럽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미소처럼 작은 신체적 행동으로써 부모님에게 좋은 감정을 많이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꽉 안아주는 것이 멋적다면, 다음에 부모님을 볼 때는 조그마한 신체적 애정 표현을 추가해 보세요. 부모님 이마에 입을 맞추거나 대화할 때 손을 잡는다면 그들이 보이는 긍정적인 반응에 아마 여러분은 놀랄 것입니다. 신체적 애정 표현을 통해 사람들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 더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부끄러워 하지 마시고 부모님이나 형제들에게 먼저, 가벼운 입맞춤이나 포옹을 해보세요. 한번의 진정한 포옹은 천마디 말보다 더 강한 의미를 전달합니다.



3

방문은 곧 선물입니다

가능한 한 자주 부모님을 방문하세요. 방문이 어려울수록 여러분이 받을 보상은 더 커집니다. 부모님을 방문했을 때는, 집안 정돈 차원이 아니라 누가 뭐라 그러지 않더라도 먼저 소매를 걷어올리세요. 아무리 집이 깨끗해도 여러분이 정리하고 치우고 고칠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것입니다.

꾸란에서는 하나님의 예언자 예수와 야호야(요한)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로 언급됩니다. 그들은 부모님의 요청에 순종하였고 그들에게 사랑스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더 많이 도와드릴수록 여러분은 이슬람의 위대한 예언자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방문을, 기억에 남고 기다려지는 그런 방문으로 만드세요. 방문할 때마다 부모님을 도울 때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올라갈지 상상해 보세요. 부모님에 의해 환영받는 것보다 포근한 느낌은 없답니다.

잊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른으로 성장해갈수록 부모님 역시도 나이를 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강해 보이는 얼굴 뒤에 연약한 모습이 숨겨져 있으며 우리의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4

심부름 혹은 에스코트

하나님께서 꾸란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 “나(하나님)는 인간에게 부모님께 효도하라 분부하였도다 : 어머니는 어려움에 어려움을 더하여 아이를 배었고 젖을 떼기까지는 2년이라. 그대는 나에게 감사하고 그대 부모님께 감사하라. 나에게로 귀착할 것이라” 31:14

부모님에 대한 효도는 당연한 상식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기회는 많습니다.

여러분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방법 중의 하나는 부모님의 심부름을 해주거나 부모님이 외출할 때 에스코트를 해주는 것입니다. 심부름이나 외출시 부축이 필요한 나이가 아닐지라도 부모님은 여러분의 도움에 고마워할 것입니다. 그들의 일정을 잘 파악하시고 병원에 갈 때나 다른 모임에 갈 때 함께 가주세요.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함께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적에 여러분은 사탕이나 장난감을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 이제 여러분은 나이가 들었고 부모님께 용돈을 줘어주신다면 그것은 축복 받고 환영 받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도와주겠다고, 함께 가주겠다고 제안하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은 좋아하실 것입니다.



5

정중히 초대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저녁을 초대하거나 우리만을 위해 요리를 해서 불러준다면 우리는 특별한 기분을 느낍니다. 예산과 능력을 고려하여 특별한 날이 아니라도 부모님을 저녁으로 초대해 보세요(외식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당장 예산이 없다면 지금부터 저금을 시작하여도 되겠지요.

하나님의 사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최후의 날을 믿는다면 손님에게 융숭히 대접할 것을 조언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 평생을 노력하셨는데, 우리가 부모님을 제쳐두고 누굴 더 정성들여 대접한단 말입니까?



6

선물을 주세요

하나님의 사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물하라, 서로간의 사랑이 증가할 것이라” 즉 흥적이든 미리 계획을 세웠든 선물을 주는 것은 부모님에 대한 배려의 마음을 표시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너그러이 베풀 것을 생각할 때면 가족 구성원 이외의 가난한 사람을 떠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에게 베푸는 것에 더 커다란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7

부모님께 감사하세요

우리 중의 일부는 부모님과 원만한 관계를 가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일이라곤 나를 뱃 속에서 보관해 두었다가 출산해 준 것 밖에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이고 슬픈 경우일지라도, 우리의 어머니는 감사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방법은 감사의 마음을 드러내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기, 성지순례를 하며 어머니를 등에 업고 메카까지 간 한 무슬림이 있습니다 :

이 무슬림은 어머니를 업은 채 메카의 카으바 근처까지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교우들 중의 한 학자에게 질문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있어 마치 잘 길들여진 낙타입니다. 어머니가 저를 뱃속에서 운반하셨던 것보다 제가 어머니를 운반한 것이 더 많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충분히 다 갚은 것인가요?” 그는 다음과 같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노라. 그대는 어머니가 출산시 느꼈던 진통의 한순간도 갚지 않았노라”

우리가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더욱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가장 자비로우시고 가장 자애로우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설교과 지속적인 조언과 질책보다는, 우리가 그분들 곁에 있어주는 것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한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의 마음은 언젠가는 열릴 것이라 희망합시다.